



[해설] 부동산 투기광풍 자본시장으로 전이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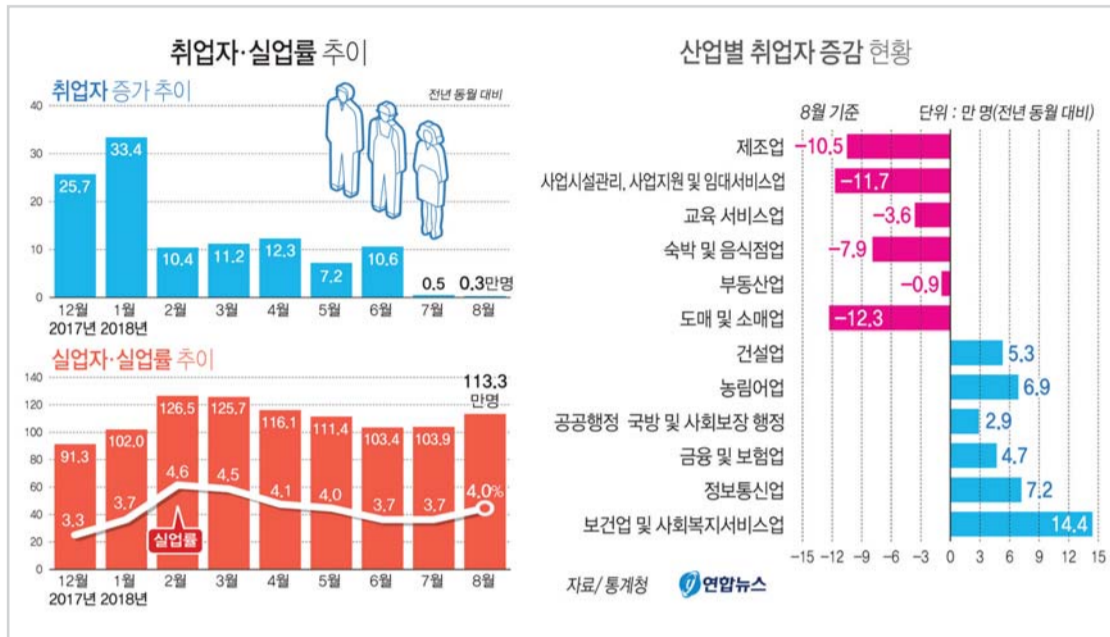
Economy

코스피 2282.92 (-0.28)	코스닥 826.33 (+6.10)
금리 (연고래 3년) 1.89 (-0.03)	환율 (원-달러) 1128.60 (+3.30) (12일)

# 일자리, 길을 잃다

## 8월 취업자 3000명 ↑ (전년 동기비) 두 달 연속 '고용 참사'

실업자 113만명 IMF 후 최대 청년층 실업률도 10.7% 최악 40대 취업자 가장 큰폭 감소



대한민국이 '고용 약화'의 터널에서 좀처럼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지난 8월 취업자 증가수가 전년 같은 기간 보다 3000명 증가하는데 그쳤고, 실업자 수는 100만명을 훌쩍 넘어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특히 음식·도소매 분야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청년실업률도 10%까지 올라 고용 상황을 더욱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90만 7000명으로 1년 전보다 3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과 도매 및 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조선업·자

동차 등의 구조조정 여파가 계속되면서 1년 전보다 10만 5000명 줄어 들어 지난 4월부터 5개월째 마이너스의 늪에 빠졌다.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도 각각 12만 3000명, 7만 9000명 감소했다. 도·소매업은 9개월째, 숙박·음식점업은 15개월

째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건물 청소원이나 경비원 등이 속하는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의 취업자는 11만 7000명 줄었다. 이 업종 취업자는 작년 2월부터 19개월째 감소세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취업자 수

가 15만 8000명 줄어 1991년 12월 25만 9000명 감소한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지난 달 30대 취업자도 7만 8000명 줄었다.

종사상 지위로 보면 자영업자는 5만 3000명 줄었고, 임금근로자는 5만 3000명 줄고, 일용근로자는 각각 18만 7000명, 5만 2000명

감소했다.

상용근로자는 27만 8000명 늘었으나 작년 8월 증가폭(46만 7000명)에는 못미쳤다.

전체 고용률은 60.9%로 1년 전보다 0.3%p 하락했다.

무엇보다 실업자가 1년 전보다 13만 4000명 늘어난 113만 3000명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36만 4000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많았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0.0%로 1999년 8월 10.7%를 기록한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청년층 실업률 상승은 주로 10~20대 일자리 사정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30~40대 일자리 감소와 청년실업률 증가라는 악재가 동시에 분출되자 일각에서는 우리 경제의 일자리 엔진이 멈춰섰다는 암울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비율지표인 고용률까지 낮아진 상황에서 인구구조 변화로는

고용 부진을 설명할 수 없다"며 "경기악화 국면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의 경직적 시행이 비용 충격을 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청년층과 30~40대 취업자 수가 모두 감소했다는 것은 고용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며 "최저임금을 넘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고용 버블이 너무 심했던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메트로신문 수습기자 최종 합격자

石大晟 洪敏瑛  
李恩惠 車亨朝  
(이상 4명)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경숙 여사가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 - 2018. 9. 12 -

## 최저임금 속도 조절... 지자체 추경 43조 집행

다시 한 번 최악의 고용지표를 받아든 정부가 12일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안 43조원을 집행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방안을 당·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8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3000명에 그치고 6월 이후 고용률도 하락세를 보여 마음이 무겁다"며 "지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주재하는 김동연 부총리 /연합뉴스

금까지 추진한 정책에 재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조정,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등 시장에서 제기 해왔던 이슈를 언급하고 연내 일자리를 더 만들기 위해 전 부처가 가용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 추경에 이어 지자체 추경이 42조 9000억원 규모로 계획되었다"며 "신속히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기금확대, 공공사업 투자, 정책금융 확대를 통한 3조 7000억원 규모의 재정보강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고용부진의 요인으로 최저임금을 지목하고 속도 조절 방안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10.9%)은 '불가역적'이라며 향후 최저임금 결정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 인상은 결정된 것이니 불가역적"이라며 "그 이후의 방향에 대해 시장과 기업의 애로를 더 귀담아듣고 조정할 수 있는 정책적 여지를 좀 봐야 하고 관계부처, 당, 청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 부동산 광풍, 갭투자가 낳은 新 트렌드 "요즘 누가 집 보고 사요?"

매도자 절대 우위 시장에 집도 안보고 매매 추세

"요즘 집 안 보여줘요. 그냥 조건 맞으면 사는 거지."

매도자 절대 우위 시장이 형성되며 매수할 집을 구경도 못하는 분위기다. 집값 상승 기대감에 매물 품귀 현상이 지속되자 '살 거면 사고 말 거면 말라라'는 식이다. 특히 갭투자가 한몫했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한 다중

택자는 세입자를 붙잡기 위해 전전공공이다. 부동산 광풍에 기이한 트렌드가 생겨나고 있는 것.

12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집값 과열 지역의 매매 시장이 까다로워졌다. 하루가 다르게 집값이 오르는 자 집주인이 자주 매물을 거둬들여 급매물을 잡아도 좀처럼 계약 성사가 어렵다.

서울 용산구에서 아파트를 알아보던 A씨는 "매물이 너무 없어

서 급매물을 잡기 위해 부동산마다 연락처를 남겨놨다"며 "계약 하나가 체결되면 그다음 매물은 5000만원씩 뚝다. 집값이 계속 오르면 매물이 나오기만 하면 집도 안 보고 사더라"고 말했다.

흥정 문화도 사라졌다. 마포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 B씨는 "요즘은 웬만하면 가격을 안 건드리더라"며 "집주인 심기 거슬리면 아예 매물을 거둬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지난 7월 용산·여의도 통합개발 계획이 나오고 인근 지역의 집값이 폭등한 이후로 집주인이 좀처럼 물건을 안 내놓는다"며 "계약서를 쓰기로 한 당일에 위약금을 물어주더니 가격을 더 올려서 매물을 다시 내놓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집주인보다 세입자 눈치를 보기도 한다. 갭투자로 주택을 구매한 경우 세입자를 불편하게 하면 전세를 계속 돌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초구 반포에서 20억원 전후의 아파트를 알아보던 C씨는 "요즘은 집 사면서도 집 보러 가면 실례라더라"며 "세입자 심기를 건드리면 전세를 계속 돌리기 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 부동산 공인중개소. /채신화 기자

드니까 갭투자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동과 호수로 로얄동, 로얄층인지, 수리 여부 등만 고지해 주고 구매 여부를 결정하라고 했다"며 "반포뿐만 아니라 영종

도 등 집값 과열 지역에선 갭투자가 성행하면서 보편화된 문화라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부동산에서도 애가 탄다. 매도자들이 매물을 좀처럼 내놓지 않아 '물건 확보'가 절실하다.

성동구에 매물을 내놓으려던 D씨는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며 세입자가 불편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니 집을 안 보여주고 팔아줬다고 하더라"며 "물건만 주변 신고가를 만들어주겠다고 했다"고 귀띔했다.

이런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적인 거래 분위기는 수요가 월등히 높아 조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2면에 계속) /채신화 기자 csh9101@